

한자 대회 프로그램을 통해 본 중국의 언어문자정책과 문화정치*

문준혜**

<目 次>

1. 머리말
2. TV 한자 대회 프로그램
3. 중국의 언어문자정책과 문화정치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에서 한자 대회 TV 프로그램이 유행한 현상을 통해 중국의 언어 문자 정책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것을 중국 문화 정치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中央電視臺)는 2013년 8월에 제1회 '中國漢字聽寫大會[중국 한자 받아쓰기 대회]'를 제작·방영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의 4배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보다 앞선 2013년 7월에 지방의 河南 위성 TV는 '漢字英雄[한자영웅]'이라는 한자 실력 경연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여 전국 시청률 톱10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한자영웅'은 TV 방송과 동시에 스마트폰 앱으로도 출시되어, 다운로드 43만 건, 하루 사용자 15만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691).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초빙강의교수

8,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¹⁾

2013년에 시작된 한자 대회 프로그램의 유행은 한자를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소위 ‘漢字盲(한자 문맹)’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가 대중매체를 통한 한자 받아쓰기 대회의 출현과 열풍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교육적 차원 이상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2012년 12월에 국민의 언어·문자 생활과 관련된 국가 정책으로 ‘국가의 중장기 언어문자 사업 개혁·발전 계획(國家中長期語言文字事業改革和發展規劃綱要, 2012~2020)’을 제시하며, 중국 전통 문화의 전파와 쓰기 교육의 강화를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였다. 한자 쓰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것으로 기록된 古典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고전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연설을 할 때면 어김없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중국 전통 문화의 핵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자 쓰기 대회의 유행은 중국의 언어·문자 정책과 무관하지 않으며, 더 크게는 문화 정치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TV라는 대중매체에서 유행한 한자 대회의 면모를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중국의 국가적 정책과 관련지어 심층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2. TV 한자 대회 프로그램

2013년에 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이하 ‘광전총국’으로 약칭함)²⁾에서는 ‘限歌令’³⁾을 반포하여 가수 선발 쇼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 시간을 제한하고, 새로운

- 1) 신경진, 「컴퓨터가 만든 ‘한맹’ 벗어나자 ... 한자 받아쓰기 대회 열풍」, 중앙일보 2014년 3월 1일자 기사.
- 2) 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중국의 신문, 출판, 방송, 영화 및 TV 분야의 국가 행정 부서로서 국무원의 직속기구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직속기구인 中央宣傳部(이하 ‘중선부’로 약칭함)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 3) 限歌令은 2013년 7월 24일에 광전총국에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TV 프로그램의 획일적 경향과 전파 낭비를 문제 삼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제작수를 제한하고 방송 시간을 조정할 조치를 말한다.

문화류 프로그램의 방송을 장려하였다. 공영매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여러 방송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했는데, 그 중 하나가 TV에서 한자 실력을 겨루는 한자 대회 프로그램이다.

1) ‘中國漢字聽寫大會’⁴⁾

중국 CCTV와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가 공동 주관하고 北京實力電傳文化發展有限公司가 제작한 TV 프로그램으로, 총 31개의 省, 自治區, 直轄市에서 선발된 중학생들과 중국 대륙에서 교육받은 홍콩, 마카오, 타이완 출신 학생들이 TV에서 한자 쓰기 능력을 겨룬다.

· 기획의도: 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국가의 언어·문자 사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② 전자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한자를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의 기본 능력을 기르고 한자 문화를 학습하도록 돕는다. 단순한 오락성 공연이 아니라, 관중들을 TV 앞에 불러 모아 즐기는 가운데 지식을 습득하고 한자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한다.

③ 중화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담긴 고전을 이해하려면 고전에 쓰인 어휘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휘를 구성하는 한자를 정확하게 쓰고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자와 한자로 구성된 어휘를 시험의 형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참여방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예선을 통해 선발된 36팀⁵⁾(각 팀 5명, 총 180명)을 4팀씩 묶어 9개 그룹을 만들고 총 9번의 1차전을 치른다. 1차전에서 한 팀을 이룬 5명의 팀원들은 상대팀의 팀원들과 짝을 이루어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대결한다.⁶⁾ 1차전을 통해 선발된 45명의 선수들과 주최측

4) 공식 홈페이지 <http://tingxie.cntv.cn/2015/index.shtml>

5) 제1회, 제2회 대회에는 32개 팀 160명의 학생이 참가했는데, 2015년 제3회 대회부터 36개 팀, 180명 참여로 변경되었다.

에서 발행한 3장의 와일드카드를 통해 선발된 홍콩, 마카오, 타이완팀 내 우수 학생 3명이 더해져 총 48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3번의 준결승을 치른다. 4명이 한 팀이 되어 상대팀과 짝을 이루어 문제를 푼다. 준결승전을 통해 총 12명의 학생들이 결승전에 진출한다. 12명의 결승 진출자들은 개인으로 경쟁하고, 그 가운데 3명의 선수가 선발된다. 이들이 한사람씩 돌아가며 문제를 풀어 최종 1인의 우승자를 가린다.

무대 위에서 학생 선수들이 문제를 풀 때, 무대 아래에서는 성인 관중 패널들이 함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014년 대회부터는 스마트폰 앱이 출시되어 시청자들도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TV에서 시험관이 문제를 제시하면, 휴대전화에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답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시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문제: 문제 은행을 만들고, 상용자 가운데 ‘틀리기 쉬운 어휘’(易錯)와 ‘필수 어휘’(應知), ‘고급 어휘’(高難度)로 난이도를 구분하여 고루 출제한다. 예를 들어 2014년 준결승전에서 출제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啜泣(chuò qì), 腌漬(yān zì), 甘冽(gān liè), 屹立(yì lì), 江渚(jiāng zhǔ), 梳篦(shū bì), 漁陽鼙鼓(Yú Yáng pí gǔ), 朕躬(zhèn gōng), 向隅而泣(xiàng yú ér qì), 風馳電掣(fēng chí diàn chè), 贅疣(zhuì yóu), 剛愎(gāng bì), 彤云(tóng yún), 槁木死灰(gǎo mù sǐ huī), 面面相覷(miàn miàn xiāng qù), 暹羅(Xiān Luó), 尺澤之鯢(chǐ zé zhī ní), 鰥居(guān jū), 鮑魚之肆(bào yú zhī sì), 牧豎(mù shù), 縑素(jiān sù), 貂鄉鼠攘/貂鄉鼠壤(mò xiāng shǔ rǎng), 溥博/普博(pǔ bó), 瓏璫(lóng cōng), 烝民/蒸民(zhēng mǐn), 攬懲(cuān chéng), 秋闈(qiū wéi), 伧俗(cāng sú), 墓壙(mù kuàng), 闕无一人(qù wú yī rén), 鳴柝(míng tuò) 錫澀(xíng sè), 神庥(shén xiū), 命祐(mìng yù), 摠論(shū lùn), 諛言(xuān yán), 駭蕩(dài dàng), 澍雨(shù yǔ), 泮澗(pán jiàn), 傳芻(zhuàn chóu), 縞衣綦

6) 제1회 대회에서는 한사람씩 문제를 푸는 형식이었으나, 2015년 제3회 대회부터 문제의 난이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2인이 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개선되었다.

巾(gǎo yī qí jīn), 茶筌(chá xiǎn), 塵尾(zhǔ wěi), 盆沓(bèn tà), 蕪郁(fú yù), 玢璘(bīn lín), 蕢脹(shì zhàng), 梱輿(kǔn ào), 宗祊(zōng bēng), 循陔(xún gāi), 祗仰(zhī yǎng), 瞳矐(tóng lóng), 奸宄(jiān guǐ), 躡級(liè jí), 愧慝(kuì tì), 棟折榱崩(dòng shé cuī bēng), 犁生駢角(lí shēng píng jiǎo), 怵怛(chù dàn)

출제된 어휘들은 각종 사전류에서 찾아내며, 『論語』, 『水經注』, 『紅樓夢』 등의 고전에 나오는 문장을 활용한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文語가 대부분이다. 준결승전의 첫 번째 문제인 ‘啜泣’은 『詩·王風·中谷有蓷』의 “有女此處，啜其泣矣。(남편과 이별한 여인 있어 훌쩍이며 우네.)”에 보이는 어휘이고, ‘腌漬’는 식품 저장 방식의 일종으로 역시 상용 어휘가 아니다. 무대에 등장한 학생 선수는 이 문제를 맞추지 못했고, 무대 아래에서 함께 문제를 푼 성인 관중 패널 중에서도 23%의 인원만 정답을 적었다.⁷⁾

· 방영시간: 제1회 대회(2013.8.2.-10.18), 제2회 대회(2014.7.13.-10.10), 제3회 대회(2015.7.17.-10.2)까지 진행된 시즌성 프로그램으로, CCTV-10 채널을 통해 매주 금요일 황금 방송 시간대인 19:30분부터 약 100분 간 방영되었다. 2013년 제1회 대회의 평균 시청률은 2.59%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 시청률의 4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화류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⁸⁾

2) ‘漢字英雄’

河南 위성 TV와 중국 동영상 재생사이트인 iQIYI(愛奇藝)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한 TV 프로그램으로, 문화와 오락을 겸비한 한자 받아쓰기 대회이다.

· 기획의도: ① 한자를 많이 아는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한자 능력을

7) 성인 관중 패널들은 제2회 준결승 문제 가운데 22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정답을 적지 못했다. <https://baike.baidu.com/item/中國漢字聽寫大會第二季>

8) 2016년에도 전국적 규모의 예선이 진행되었지만 TV에서 결승전이 치러지지지는 않았다. 현재는 지역별로 학생들의 한자 능력을 제고하는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한자받아쓰기 대회를 진행하며, 전국적 규모의 대회와 TV를 통한 방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타내고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TV와 인터넷 프로그램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사회적 가치, 매체적 가치를 발굴한다.

③ 한자 열기를 조성하고 TV 프로그램의 새로운 경향을 선도한다.

④ 방송과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출시하여 관중들을 위한 새로운 상호 작용의 모델을 창조한다.

⑤ 퍼즐 게임의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한자와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내면 탐구에 관심을 기울인다.

· 참여방식: 7-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번의 1차전, 6번의 2차전, 1번의 준결승전과 1번의 결승전을 통해 1명의 우승자를 가려낸다.

· 시험문제: 1차전에서는 ‘一音多字’, ‘一類多字’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여 한자를 많이 이는 학생을 선발한다. 2차전 이상에서는 『詩經』, 『楚辭』, 魯迅의 문집 등에 나오는 어휘와 成語 등을 시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光緒(guāng xù), 間歇(jiàn xiē), 甲冑(jiǎ zhòu), 味同嚼蜡(wèi tóng jiáo là), 梧桐(wú tóng), 陡峭(dǒu qiào), 秋毫无犯(qiū háo wú fàn), 荷爾蒙(hé 'ěr méng), 霧凇(wù sōng), 顛茄(diān qié), 熨帖(yù tiē), 獼猴(hú sūn), 圖們江(Tú mén jiāng), 恃才傲物(shì cái 'ào wù), 齟齬(cū hū), 禿鷲(tū jiù), 癩蛤蟆(lài há má), 惴惴不安(zhuì zhuì bù 'ān), 髖關節(kuān guān jié), 繁文縟節(fán wén rù jié), 咋舌(zǎ shé), 裘皮(qiú pí), 溝壑(gōu hè), 日臻完善(rì zhēn wán shàn), 惲代英(yùn dài yīng), 矯揉造作(jiǎo róu zào zuò), 鑿水(qiāng shuǐ), 爐算子(lú bàn zǐ), 分道揚鑣(fēn dào yáng biāo), 黑曜石(hēi yào shí), 擲拳頭(zhì quán tóu), 黏稠(nián chóu), 三聚氰胺(sān jù qíng' àn), 暴殄天物(bào tiǎn tiān wù), 拾掇(shí duo), 東河(dōng hé), 瓮中捉鼈(wèng zhōng zhuō biē), 駑馬(nú mǎ), 曾國藩(zēng guó fān), 梟首示衆(xiāo shǒu shì zhòng), 諡号(shì hào), 襁褓(qiǎng bǎo), 核苷酸(hé gān suān), 溘然長逝(kè rán cháng shì), 摩羯座(mó

jié zuò), 陀螺(tuó luó), 桀紂(jié zhòu), 馥郁(fù yù), 斧鉞(fǔ yuè), 貔貅(pí xiū), 汗水涔涔(hàn shuǐ cén cén), 杓斝子(liào jué zǐ), 萬目睚眦(wàn mù yá zì), 嫫嫫(mā mā), 神龕(shén kān), 郟縣豆瓣(Pí xiàn dòu bàn), 兄弟鬩牆(xiōng dì qié qiáng), 犖犖大端(luò luò dà duān)

· 방영시간: 제1회 대회(2013.7.11-8.30), 제2회 대회(2014.1.17.-3.14), 제3회 대회(2014.7.11.-10.10)까지 진행된 시즌성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21시 20 분에 TV 방송이 시작되고, 조금 뒤에 iQIYI의 전체 네트워크에서 방송되었다. 2013년 2차전 두 번째 대회는 시청률이 0.65%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 4위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이었다. 프로그램 방영 이후 각종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인민일보』에서는 “문화적 내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오락성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하였고, 人民网에서는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의 선봉이라고 평가하였다.⁹⁾

3) ‘最愛中國字’

중국 黑龍江 위성 TV와 北京好看文化傳媒有限公司가 공동 제작한 TV 프로그램으로, 참가자의 한자 능력뿐 아니라 역사문화 지식을 겨루는 퀴즈 대회이다.

· 기획의도: 2013년 하남 위성 TV의 ‘한자영웅’ 프로그램과 CCTV의 ‘한자 받아쓰기 대회’의 성공은 TV 매체를 통해 전통 문화를 전파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를 본받아 흑룡강 위성 TV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① 중국 전통 문화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고전을 읽으려는 열정을 불러 일으켜 중국인의 전통 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증진시킨다.

② TV 엔터테인먼트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교육을 주요 목표로 삼

9) 徐濤, 龔宇 主編, 『漢字英雄』, 北京, 尚武印書館, 2014, 1-2쪽.

아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 참여방식: 제1회 대회는 약 300여 명의 신청인 가운데 64명의 참가자를 선출하였다. 1차전은 8인씩 대결하여 총 8인의 경선 진출자가 선발된다. 1차전의 차점자들을 부활전의 형태로 대결시켜 2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총 10인의 선수가 결승전을 치러 우승자를 가려낸다.

· 문제: 詩, 詞, 歌曲 등 문학 작품의 한 구절을 묻거나, 작품의 배경,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등의 지식을 시험한다. 예를 들어 ‘跳槽(tiào cáo)’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黃昏(huáng hūn)’은 현재의 시각으로 대략 몇 시 경을 가리키는가? 처음으로 ‘一步登天’한 사람은 누구인가? ‘垂楊雙鬢’은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형용하는 단어인가? 남성의 헤어스타일을 형용하는 단어인가? 등과 같은 문제를 출제한다.

· 방영시간: 제1회 대회(2014.1.6.-4.28), 제2회 대회(2014.5.-10.27)까지 진행된 시즌성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밤 22시에 후룡강 위성 TV를 통해 방송되었다. 평균 시청률이 동시간대 프로그램 중 10위 이내에 드는데, 이는 강소 위성 TV 및 북경 위성 TV 같은 1차 위성 TV의 시청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후룡강 위성 TV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젊은 시청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고전 문화를 좋아하는 중년 및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16-34세 사이의 시청자가 가장 많다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CCTV의 ‘중국 한자 받아쓰기 대회’와 하남 위성 TV의 ‘한자영웅’은 직접적으로 한자 능력을 시험하는 프로그램이고, 후룡강 위성 TV의 ‘最愛中國字’는 한자 능력 뿐 아니라 중국 문화에 대한 소양을 시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에 대한 높은 시청률은 한자 대회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민적 인기와 지지를 증명해준다. 이에 힘입어 CCTV는 ‘한자 받아쓰기 대회’와 유사한 형식의 ‘中國成語大會’(2014년)를,

하남 위성TV는 ‘한자영웅’과 짝을 이루는 ‘成語英雄’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한자 쓰기 능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最愛中國字’와 같이 중국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오락과 교양을 겸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河北 위성 TV의 ‘中華好詩詞’(2013년 10월 시작)는 사극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드라마에 등장하는 詩詞를 문제로 출제한다. 雲南 위성 TV의 ‘中國燈謎大會’(2013년 12월 시작)는 元宵節에 거행하는 민속 문화를 퀴즈프로그램과 결합한 것이고, CCTV의 ‘叮咯嚨咚噹’(2015년 3월 시작)은 京劇·越劇·川劇 등 희곡 분야의 무형 문화유산을 한류 스타들이 직접 배우고 공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오락성이 강하지만 중국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天津 위성 TV의 ‘中華愛美麗’(2014년 7월 시작), 浙江 위성 TV의 ‘中華好故事’(2014년 8월 시작), 陝西 위성 TV의 ‘唐詩風雲會’(2015년 3월 시작), CCTV의 ‘中國詩詞大會’(2016년 2월 시작)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3. 중국의 언어문자정책과 문화정치

20세기 초기만 해도 한자는 중국의 발전과 번영에 장애가 되는, 반드시 표음문자로 대체되어야 하는 문자로 인식되었다. 魯迅이 “한자가 없어지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漢字不滅, 中國必亡.)”고 주장한 것은 한자가 지나치게 어려워서 대다수의 중국 국민들이 문자로 기록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선진 문화와 영원히 단절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¹⁰⁾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 신속한 문자 개혁의 요구가 제기되었고,¹¹⁾ 1954년 11월에는 中國文字改革委員會가 조직되었다. 초대 회장인 吳玉章은

10) 吳皓, 「魯迅爲何如此痛恨漢字：“漢字不滅, 中國必亡”」, 『羊城晚報』 2010.12.07. 신문기사.

11) 1949년에 吳玉章은 모택동에게 효과적인 文盲 퇴치를 위해 신속한 문자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1949년 10월에 문자 개혁 연구 모임인 中國文字改革協會가 성립되었다.

1954년 12월에 거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한자를 정리하여 표음문자로 개혁해간다는 한자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1956년 1월 27일에 발표된 「중공중앙의 문자개혁업무문제에 관한 지시(中共中央關於文字改革工作問題的指示)」에서 “한자는 반드시 개혁하되, 한자개혁은 세계문자 공동의拼音방향을 따라 가야한다. 또한 병음화 이전에 반드시 한자를 간체화해서, 당장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더불어 적극적으로 병음화를 위한 각종의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¹²⁾고 공표하였다. 중국 정부의 목표는 한자를 병음문자, 즉 알파벳과 같은 표음문자로 대체하는 것이었고, 개혁의 방법은 간체자를 만들고, 이체자를 제거하고, 한어병음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궁극적인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었다.¹³⁾

이후 大躍進運動(1958-1960)의 실패와 文化大革命(1966-1976) 등의 정치·경제적 원인으로 인해 완전히 중단된 문자 개혁 작업은 1973년에 周恩來 總理가 진일보한 한자 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다시 시작되었다.¹⁴⁾ 1975년에 「第二次漢字簡化方案」(이간자로 약칭함)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1977년 12월에 정식으로 공포되어 『人民日報』에서 바로 사용했으며, 교육부에서는 1978년 가을학기부터 교과서에 이간자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78년 3월에 「제이차한자간화방안」의 시행을 늦추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4월에는 교육부에서 교과서에 이간자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했으며, 7월에는 『인민일보』가 이간자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제이차한자간화방안」은 총 4,500개의 상용자 범위 안에서 853개(제1표 248개, 제2표 605)의 글자를 간화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그 중 제1표에 들어 있는 한자들은 대중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던 글자였다. 그래서 한자의 간화가 오히려 대중의 문자 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1985년 12월에 중국문자개혁위원회가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로 개편되면서 개혁 위주의 정책이 기존 사업의 재정비와 구체화로 전환되

12) 안영은, 「중국의 언어문자정책의 두 가지 중요 논제」, 『中國學論叢』 제36집, 2012, 297쪽.

13) 1955년 10월 15-23일까지 전국문자개혁회의의 토론을 거쳐 「漢字簡化方案草案」, 「第1次異體字整理表草案」이 통과되었고, 1956년-1958년까지 「漢字簡化方案」과 「漢語拼音方案」 등이 확정·공포되었다. 안영은, 위의 논문, 297-299쪽.

14) 1973년 5월에 周恩來 總理는 中央工作會議에서 “漢字的簡化還不够充分. 需要進一步的簡化.”라고 하였다.

었고, 오랜 논의 끝에 1986년 6월에 「제이차한자간화방안」이 정식으로 폐기되었다. 중국정부는 『인민일보』에 『간화자총표』(1964년 제정)를 게재하여 간화자의 보급을 촉진하고 더 이상의 간화나 문자 개혁 없이 한자 자형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임을 밝혔다. 이것은 ‘한자는 반드시 개혁하여 병음화로 가야한다’는 방침의 철회로 이해할 수 있다.¹⁵⁾ 이후 중국 정부의 언어·문자 정책은 普通話를 표준어로, 간화자를 규범문자로 확립하고 널리 보급하는 것이 되었고,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번체자의 사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¹⁶⁾ 2001년 1월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中華人民共和國國家通用語言文字法」이 시행되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 2012년 12월에 중국의 교육부와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는 「國家中長期語言文字事業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2-2020)」를 발표하여, 21세기의 언어·문자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우수한 전통 문화의 계승 체계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린다(建設優秀傳統文化傳承體系, 弘揚中華優秀傳統文化)는 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2012. 11. 8)의 선언을 언어·문자 방면에서 구체화한 실천 계획이다. 언어·문자의 규범화를 강조하는 지도사상은 동일하지만, 전 국민의 언어·문자 사용 능력을 제고하고(提高國民語言文字應用能力), 우수한 전통문화를 널리 알린다(弘揚傳播中華優秀文化)는 새로운 임무가 추가된 것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강조는 바로 古典과 한자 교육으로 이어졌다. CCTV의 ‘한자 받아쓰기 대회’ 홈페이지에서 본 프로그램이 「中華人民共和國國家通用語言文字法」¹⁷⁾과 「國家中長期語言文字事業改革和發展規劃綱要」를 홍보하고 실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밝혔듯이, TV에서 방영되는 한자 대회 프로그램들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15) 안영은, 「중국의 언어문자정책의 두 가지 중요 논제」, 『中國學論叢』 제36집, 2012, 292쪽.

16) 1994년 6월에 발표된 「關於社會用字管理工作的意見」에서는 “推行簡化字, 推進漢字規範化, 并非廢止或消滅繁體字。已被簡化了的繁體字, 其使用範圍要受到嚴格限制, 只能用于古籍整理出版、文物古迹、書法藝術。在一定的學習階段, 一定的專業範圍內, 應當認識繁體字, 以利于繼承發揚我國豐富, 優秀的傳統文化。”라고 하였다.

17) 2000년 10월 31일에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2013년 10월에 중국 북경시 교육 당국은 2015년 신학기(9월)부터 교과서에 실리는 한자 교육을 위해 고전 詩文을 더 늘리고, 2016년부터 대입 시험에서 영어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¹⁸⁾ 한자가 1930년대에는 중국의 발전을 가로 막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는 낙후된 문자로 여겨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78년 이후로 중국정부는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했고, 2010년까지 매년 1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통해 괄목할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¹⁹⁾ 경제적 자신감의 회복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신감으로까지 이어졌다. 1999년 10월 1일 '건국 50주년 기념식'에서 장저민(江澤民) 주석은 "앞으로 도래할 21세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실현될 것입니다. 모두 분발합시다."라고 선언하였고, 201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성립 90주년 기념축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중화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적 과정 중 사회주의 선진문명의 번영과 발전은 총체성, 전략성의 지위와 작용을 갖는다."고 하였다.²⁰⁾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화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선언을 따라, 2012년 말에 시작된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정부는 국민에게 '中國夢'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였다.²¹⁾ 그것은 첫째,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회복하여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둘째,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통해 세계 일등 국가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진핑 정부는 학교 교육을 개혁할 뿐 아니라²²⁾, 미디어를 통한 대중

18) 이는 학생들의 모국어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 불균형과 사교육비 부담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민재, 「중국 대학입시 영어 배점 축소 논란」, 『연합뉴스』 2013.10.23. 신문기사

19) 조영남, 『용(龍)과 춤을 추자: 한국의 눈으로 중국 읽기』, 서울, 민음사, 2012

20) 이정인, 「사회주의 정신문명'에서 '중화문화'로의 이동: 개혁개방 이후 중국 문화정책의 흐름」, 『중국문화연구』 제24집, 2014, 70쪽.

21) 2012년 11월 29일,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은 첫 공식행사로 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 전시회를 참관한 후, 「參觀復興之路展覽時的講話」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中國夢'을 언급하였다. "現在, 大家都在討論中國夢, 我以為, 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 就是中華民族近代以來最偉大的夢想."

22) 시진핑의 교육관은 소위 '단추 교육관'으로 불린다. 시진핑은 청소년 학생들이 인생의 첫

교육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언론은 선전과 교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신문과 잡지, 방송 및 인터넷까지 당의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堅政治家辦報, 辦刊, 辦新聞網站)”고 주장하며 이전 시기보다 더 보수적이고 강경한 언론관을 보이고 있다.²³⁾ 오늘날 미디어의 영향력은 그 어떤 매체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미디어를 장악하여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기존의 사회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통치 이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라는 국가 이념을 채택하고, 국민의 애국심과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의 장(場)’을 구축해 나갔다.²⁴⁾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국민교육을 강화하고, 신애국주의를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정치를 구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12.5규획(2011-2015) 기간 동안 공포된 중선부의 문건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선전과 방송 매체를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민교육을 강화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자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 즉 ‘國學熱’이 시진핑 정부에서는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단추를 잘 끼우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스승의 이상과 신념, 도덕성과 지조, 학식, 어진 성품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과서에서 고대 경전의 시가와 산문을 빼는 것은 중국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찬성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경전을 배우도록 하여 중화민족의 문화 유전자를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중국정보는 최근 교육개혁을 추진하며 전통문화와 경전 관련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4년 9월 10일자 중앙일보 기사, 「시진핑의 단추 교육관」, 최형규 기자.

- 23) 楊振武, 新時期中國特色社會主義新聞事業的行動綱領-深入學習貫徹習近平同志在全國宣傳思想工作會議上的重要講話精神 이순임, 강병환, 「시진핑 출범 이후 중국 방송정책의 특징과 변화」, 『언론학연구』 제19집, 2015, 116-118쪽
- 24) 1994년 중공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傳部)의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 발표된 이후 국무원, 선전부, 국가교육위원회, 민정부, 문화부, 국가문물국, 공청단중앙, 해방군총정치부 등 주요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 하에서 매우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1995년 5월 중공중앙선전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부, 신문출판서, 공청단중앙은 「전국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애국주의교육 추천 도서 100권에 관한 통지(關於向全國中小學推薦百種愛國主義教育圖書的通知)」를 통과시켜 100종류의 애국주의교육도서를 읽고, 100편의 애국주의 영상을 보고, 100곡의 애국주의노래를 부르는 것은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박성혜, 정진선, 문준혜의 ‘미디어국학’ 비공식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임)

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TV 國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형성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문화를 배우고 즐기며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한다. 또 전통 문화는 TV뿐 아니라 '아이치이', '요우쿠(優酷)'와 같은 신매체를 통해서도 매우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신매체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4. 맺음말

개혁 개방과 그것이 초래한 자본주의 경제의 수용은 중국을 계급, 민족, 나이, 직업, 교육 등의 차원에서 분열된 사회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분열의 확대를 막고 사회적 관계를 통일시켜 주는 구심점으로 '중국 문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대국을 이룩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확립하였다.²⁵⁾ 2000년대에 들어 대국으로 우뚝 서고자하는 바람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재해석 운동으로 퍼져나갔고, 드라마, 시사교양, 예능, 애니메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파괴되었던 역사유적과 문화유산을 복구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운동을 펼치며, 전통 문화의 재발굴과 보호론을 내세운 애국주의적 문화 운동이 고조를 이루게 되었다.²⁶⁾ 특히 시진핑 정부에서는 당의 지침을 중선부와 광전총국을 통해 제작사와 방송국에 전달하고, 방송국에서는 이에 호응하는 주선율(主旋律)·사극 드라마, 시사교양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자 대회 프로그램의 출현 역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만든 '한자맹'의 증가라는 표면적 이유 뒤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지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25) 「中華文化復興宣言—爲促進新世紀中華民族偉大復興和世界和平與發展而奮鬥」 이정인, 앞의 책, 70쪽에서 재인용.

26) 김광익, 「문화정책으로 읽는 중국」, 『동아시아브리프』 7권2호, 2012, 9-10쪽.

이야 한다. 그렇다면 한자를 대상으로 한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째, 한자는 통합의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CCTV의 ‘한자 받아쓰기 대회’에는 중국의 각 지역에서 출전한 학생 선수들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타이완 출신까지 모든 중국인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다. 소수민족과 한족의 구분이 없어지고, 대륙과 다른 지역의 구분이 없어진다. 한자는 모든 중국인을 하나의 통일시킨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역시 한자는 사회적 분열이 우려되는 중국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둘째, 한자는 우수한 전통 문화의 기초이며, 한자로 기록된 고전은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은 드라마, 시사교양, 예능, 애니메이션 등 각 장르를 통해 재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5월 1일 노동절 특집으로 방영되었던 CCTV의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大國工匠’의 경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전파하기 위한 딱딱한 기획 의도에도 불구하고 물질, 인간, 정신의 세계를 세밀하고 실증적으로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2014년 어린이날 전날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실천하자(從小積極培育和踐行社會主義核心價值觀)」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²⁷⁾은 광전중국의 2015년·2016년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담은 단편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弘揚社會主義核心價值觀動漫扶持計劃)」으로 구체화되었다.

재미있는 현상은 정부의 정책이 문화로 포장되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제2회 ‘한자 받아쓰기 대회’ 중에 ‘고대 문헌에만 나오는 어휘에 온기를

27) “우리가 주장하는 부강, 민주, 문명, 화합,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프로정신, 성실, 우호 등을 포함하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은 고대 성현들의 사상과 인인지사들의 숙원, 혁명열사들의 이상이 구현된 것으로, 여기에는 행복한 생활을 동경하는 여러 민족 인민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인이란 마땅히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자발적으로 양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我們唱導的富強, 民主, 文明, 和諧, 自由, 平等, 公正, 法治, 愛國, 敬業, 誠信, 友善的社會主義核心價值觀, 體現了古聖先賢的思想, 體現了仁人志士的夙願, 體現了革命先烈的理想, 也寄托着各族人民對美好生活的向往. 只要是中國人, 就應該自覺培育和踐行社會主義核心價值觀)” 차혜정 옮김,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서울, 미래엔, 2015, 225쪽.

더히는 전국민적 행동(全民悟熱冰封漢字行動)'이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매주 프로그램에 등장한 '고대 문헌에만 나오는 어휘(冰封詞匯)' 하나를 精選하여 TV, 신문, 인터넷을 통해 널리 전파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해당 어휘를 학습하고 사용하여 고서에 쓰여 있는 문자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²⁸⁾ 전국적으로 많은 주류 매체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가했으며, 일반 대중들은 메시지나 인터넷 댓글과 같은 문자 생활에서 이러한 어휘를 활발하게 사용하였다. 또 학생들의 작문에도 이러한 어휘가 사용되는 현상이 생겨났다.²⁹⁾

한자와 한자로 기록된 전통 문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통 문화로 포장된 정부 주도 하의 국민교육은 부지불식간에 대중에게 침투되어 신애국주의와 문화적 우월감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조복수는 관련 논문에서 개혁 개방으로 인한 경제발전과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중국 사회도 점차 개방적이고 소통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百家講壇』이라는 교양 프로그램을 볼 때, 국가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있는 각종 대중매체들이 탈정치화 되기 시작했고, 통제에 따른 폐쇄적인 소통구조는 점차 개방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³⁰⁾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문화라는 포장 뒤에 숨어 있는 중국 정부의 조직적인 정치 활동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중국에서 문화는 여전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발전 방향을 위해 봉사한다. 중국에서 문화는 시대풍조 리더와 인민 교육이라는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문화 종사자는 문화개혁발전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반드시 당의 지도이념에 충실해야 한다.³¹⁾ 문화의 사회·정치적 책임이 강조되는 한 개방적이고 탈정치적인, 소통 가능한 문화 활동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자국의 전통 문화를 중시하고 도덕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28) “讓書寫在古籍里的文字真正活起來”는 ‘한자 받아쓰기 대회’의 표어이다.

29) 「第二屆中國漢字聽寫大會發起“全民悟熱冰封漢字行動”」, 央視網, 2014년 7월 1일자 기사

30) 조복수, 「중국 TV 프로그램의 ‘대중화(大衆化)’ 개혁 - 〈백가강단(百家講壇)〉의 사례분석」, 『문화와 정치』 제2권 제1호, 2015

31) 김태만,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문화강대국의 길」, 동북아문화연구 제37집, 2013, 28쪽.

시진핑 정부의 문화 정치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미디어라는 강력한 매체를 무기로 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사실상 정부 주도의 조직적인 의식 계몽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넘어 문화우월주의, 문화패권주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중국은 현재 강력한 자본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문화의 수용과 소비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다만 문화라는 온화한 형식 속에 숨어 있는 실제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參考文獻〉

- 김광억, 「문화정책으로 읽는 중국」, 『동아시아브리프』 7권2호, 2012.
- 김태만,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문화강대국의 길」, 『동북아문화연구』 제37집, 2013.
- 김평수, 「12.5규획으로 본 중국의 국가전략과 문화산업정책」, 『글로벌문화콘텐츠』 통권 제9호, 2012.
- 김혜준, 「中國國學」, 『西方漢學』 그리고 「世界中國學」 『中國現代文學』 第51號, 2009.
- 안영은, 「중국의 언어문자정책의 두 가지 중요 논제」, 『中國學論叢』 제36집, 2012.
- 오일만, 『2022년, 시진핑의 신장정』, 나남, 2016.
- 이강재, 이상의, 문수정, 「중국의 언어정책과 중화주의 언어담론」, 『中國文學』 제44집, 2005.
- 이건웅, 「중국 문화산업 연구 현황과 사례 분석」, 『인문콘텐츠』 제33호, 2014.
- 이동배, 「중국의 문화정책 소고(小考)」, 『문화콘텐츠연구』 제2호, 2012.
- 이순임, 강병환, 「시진핑 출범 이후 중국 방송정책의 특징과 변화」, 『언론학연구』 제19집, 2015.
- 이정인, 「사회주의 정신문명'에서 '중화문화'로의 이동: 개혁개방 이후 중국 문화정책의 흐름」, 『중국문화연구』 제24집, 2014.
- 임대근, 「사회주의 중국의 국가권력이 공연예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서론적 연구」, 『외국문학연구』 제16호, 2004.
- 전가림, 「중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과 그 영향력: 공자학원과 방송 미디어매체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50권, 2010.

- 정보은, 「현대중국 “국학열(國學熱)”의 사회체제형성으로서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 『중소 연구』 제36권 제3호 통권135호, 2012.
- 조복수, 「뉴미디어가 이끄는 중국 담론지형의 변화」, 『담론 201』 제16권 4호 통권52호, 2013.
- 조복수, 「중국 TV 프로그램의 ‘대중화(大衆化)’ 개혁 - 〈백가강단(百家講壇)〉의 사례분석」, 『문화와 정치』 제2권 제1호, 2015.
- 조영남, 『용(龍)과 춤을 추자: 한국의 눈으로 중국 읽기』, 서울, 민음사, 2012.
- 형려국, 「오늘날 중국의 “국학열(國學熱)”의 몇 가지 사고에 대해」, 『孔子學』 제16집, 2009.
- 南竺君, 「『漢字英雄』, 『中國漢字聽寫大會』節目思考」, 『傳播與版權』, 2013(7).
- 薛婧, 劉行芳, 「由『中國漢字聽寫大會』看中國文化傳播」, 『視聽』, 2014(02).
- 張弢, 「“漢字狂歡”后的思考——寫在『中國漢字聽寫大會』后面」, 『東南傳播』, 2014(2).
- 張媛媛, 「從『中國漢字聽寫大會』看文化教育節目逆襲」, 『現代營銷(學苑版)』, 2014(1).
- 徐濤, 龔宇 主編, 『漢字英雄』, 北京, 尚武印書館, 2014.
- 신경진, 「컴퓨터가 만든 ‘한맹’ 벗어나자 ... 한자 받아쓰기 대회 열풍」, 중앙일보, 2014.3.1. 신문기사.
- 신민재, 「중국 대학입시 영어 배점 축소 논란」, 『연합뉴스』, 2013.10.23. 신문기사.
- 劉郁菁, 「新加坡漢語拼音教學堪憂 或令學生成“漢字盲”」, 華人新聞, 2009.2.11. 신문기사.
- 王鵬, 「漢字听寫節目走紅 深藏“中國夢”」, 時代周報, 2013.11.14. 신문기사.
- ____, 「第二屆中國漢字听寫大會發起“全民悟熱冰封漢字行動”」, 央視網, 2014.7.1. 기사.

〈Abstract〉

A Study on Chinese Language and Character Policy, and Culture Politics
through the Chinese Character Competition Program

Moon, Joon-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nges of Chinese language and character policy through the Chinese language contest TV program and to understand it in the context of Chinese culture politics.

The current trend of the Chinese character contest TV program, which is currently being broadcasted in China, is based on the social phenomenon that people can not accurately utilize Chinese characters. However, the contest program seems to contribute to the purpose beyond the educational level of simply writing letters correctly. Chinese government presented in December 2012, “National medium and long-term language enterprise reform and development plan (2012-2020, national long-term language literacy reform program),” as the main task.

Strengthening Chinese writing ability is to cultivate the ability to read the recorded classics(古典), and Classics is the basis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which is presented as the basis of the claim when the Chinese premier, Xi Jinping, makes a speech. Hanja is a powerful adhesion that unifies Chinese people who are divided into economic status, regions, and ethnic group; This unification is the ground of Chinese classical culture emphasized by the Xi Jinping government. In this respect, the trend of Chinese writing contest is closely relevant to the Chinese language and literary policies, moreover,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cultural politics.

Key words: Chinese language and character policy, Chinese writing contest, Chinese Character Dictation Contest(中国汉字听写大会), Chinese Spelling Hero(汉字英雄), Chinese culture

이 논문은 2018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